

“모든세대가 살기 좋은 순천” 가족친화 공공의료 복지정책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안전·일자리·돌봄·출산지원까지 '성평등 도시' 실현 박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아동권리 실현과 돌봄·참여정책 선도

대한민국이 인구 오너스(onus, 부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인구 오너스란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가의 경제동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에 더해 출생률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대한민국 전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전남 동부권 또한 2024년 여수·순천·광양(여순광)의 인구 70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현실화된 인구절벽에 대응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던 전남지역 첫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회귀로 좌초됐다. 노인·장애인 비율과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 1위에 달하는 전남으로서는 정부의 의지에만 기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순천시는 인구 감소를 막고 지

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 아동, 고령자 등 모두가 살기 좋은 가족친화도시와 의료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안전·일자리·돌봄·출산지원까지 '성평등 도시' 실현 박차

순천시는 2016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이후 2022년 2단계 사업 도시로 재지정됐다.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에서는 △여성 취·창업 지원서비스 △여성 1인가구 및 한부모가정 안심홈세트 지원 △여성 안심택배보관함 △도심공원 공중화장실 안전모니터링 △아픈아이 병원돌봄 서비스 △양성평등마을 공모사업 등 성평등, 안전과 일자리, 돌봄이 어우러진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도심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민·관·경 합동 야간순찰을 실시해 범죄예방과 안전의식 고취에 힘쓰고 있으며,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과 여성친화시민참여단 활성화 등으로 여성의 역량 강화와 성평등 의식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아동권리 실현과 돌봄·참여정책 선도

순천시는 2018년 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첫 인증을 받은 뒤 2023년 9월에는 상위단계 인증까지 획득하며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해 왔다. 현재 19개 부서에서 43개 아동친화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적의 놀이터(8호까지 조성) △장난감 도서관 △순천만잡월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품격 있고 활기찬 시니어 생활, 고령친화도시 순천에서라면 OK

순천시는 2022년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최초 가입한 데 이어, 2025년 재인증을 받아 2029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시는 제2기 고령친화도시 추진 비전을 '생태수도 순천, 품격 있는 노년 생활'로 정하고 △노년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노년이 존중받는 사회통합 플랫폼 구축 △노년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 보장이라는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8대 영역 4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는 오는 하반기 착공 예정인 북부복지타운(요양시설·복지관 복합), 45층 규모 외서파크골프장 건립을 통해 시는 어르신 복지와 여가·체육 인프라를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참전·보훈 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경로당 활동비를 신설하는 등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어르신 계층에 대한 예우

와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는 곳에서 진료받을 권리, 지방소멸 대응할 필수의료체계 구축

인구감소와 고령화, 의료공백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순천시는 자체 공공의료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젊은 부부들은 소아과 진료를 위해, 노년층은 유사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 거주를 기피한다는 점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의료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2025년 말까지 시 출연금으로 '순천시 필수의료지원재단'을 설립, 응급의료 정책 개발과 지원, 의료네트워크 확장에 나선다. 연간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소아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결합하여 대학병원처럼 기능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기자

신안군, 직원 마음건강 홍보관 운영



신안군은 4월 29일 군청 본관에서 '감정 분리수거 누가 누가 잘하나'라는 주제로 우울 검사 및 정신건강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청 전 직원 대상으로 우울 검사 및 직무 스트레스 검사를 시행

하고 고위험군은 심층 면담까지 진행됐다.

또한 군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응대하고 정서적 소진을 겪기 쉬운 직원들에게 분노, 짜증, 슬픔, 불안 등의 나쁜 감정을 메모지에 적어 쓰레기통에 버리며 내 감정에 대해 알아보고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신안군 관계자는 "마음이 힘들 때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제일로유치원 원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놀이 중심의 체험 활동·시청각 자료 활용한 강의 함께 진행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박성남 관장)은 최근 제일로유치원에서 원생 200명 대

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놀이 중심의 체험 활동과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의가 함께 진행되어 아이들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였다.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박성남 관장은 "어린이 시절부터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돕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무안군청 장애인복지팀과 연계하여 지역 내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포용적 지역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 설 계획이다. 무안=이기성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장성 필암서원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산수간나도 절로
이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늙사오리

- 김인후 선생의 '자연가(自然歌)' -

